

예수 성심 성월

김수연 올리비아



장군, 예수 성심 성월이 되어 유아들에게 교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이 어려운 말을 유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소?

전하! 걱정 마시옵소서. 여기 준비한 교리 도움 자료만 있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터이니 믿고 맡겨 주시옵소서.



♥ 예수 성심 성월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사랑은 달콤하고 엄마처럼 따뜻하고 잠처럼 편하고 꿈처럼 행복한 거야. 그것만은 아니지. 가슴이 아픈 걸 거야. 고통도 이기고 슬픔도 참아야 하지. 사랑하고 싶어~♪”

이승철의 ‘사랑하고 싶어’ 라는 노래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느끼시나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온전히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할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을 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나를 기꺼이 도와줄 때? 내 손을 잡아 주거나 꼭 안

아 줄때? 우리의 아이들도 성향에 따라서 각자 사랑을 느끼는 때와 그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 4세(우리나라 나이로 6세)반 담임을 할 때 매일아침 등원하는 아이들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를 낮추어 인사를 하고 포옹을 한 후 아이들과 얼굴을 마주한 뒤 코와 코를 대며 윙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만다라 그림을 색칠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집으로 돌아가 “엄마! 우리 선생님은 우리들을 엄청 사랑하거든?” 하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돈 보스코 성인의 말씀처럼 사랑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셨나요? 많은 선생님들이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이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려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번 달 소개하는 그림과 사진 자료는 모두 디다케 홈페이지 ‘<http://didache.eduseoul.or.kr>→자료방→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 동화 · NIE 활동] 사랑이란 ♪

선생님들께 → 예수 성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오감으로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진 개구리

- 저자 : 맥스 벨트하우스
- 옮긴이 : 이명희
- 출판 : 마루벌
- 발간 : 2008

강독에 앉아 있던 개구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기쁘지 슬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꿈속을 걷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개구리는 사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 놀랍게도 오리였습니다. 오리를 향한 개구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동화를 들려주기 전에 먼저 아이들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사랑하는 감정에 대해 느낌, 색깔, 소리, 냄새, 향기, 모양 등으로 자유롭게 상상해 보도록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동화를 들려준 뒤에는 그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며 오감으로 사랑을 느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야기 나누기] 사랑을 표현해요 1

- 선생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할까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사랑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 사랑에도 색깔이 있을까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요?
- 사랑에도 맛이 있을까요? 어떤 맛일까요?
- 사랑에도 냄새와 향기가 있을까요? 어떤 냄새와 어떤 향기일까요?
- 사랑을 만질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 사랑에도 모양이 있을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동화] 사랑에 빠진 개구리

동화는 책을 직접 읽어 주시거나 막대 동화(등장인물 그림에 막대를 붙인 것을 활용하는 방법)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장 동물(개구리, 오리, 토끼, 돼지)들을 색종이로 접어 만든 뒤 동극으로 꾸며 보아도 좋습니다.

- 개구리는 마음이 왜 이상해졌을까요? 왜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을까요?
- 여러분도 개구리와 같은 마음이 생겼던 적이 있나요?
- 개구리는 사랑하는 오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나요?
- 오리는 개구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고 싶나요?

[NIE 활동] 사랑을 표현해요 2

(※NIE : Newspaper In Education, 신문 활용 교육)

· 준비물 : 신문, 잡지, 네임펜, 색연필, 풀, 도화지, 색연필, 가위 등

- ① '사랑을 표현해요 1' 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 ② 다시 한 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 ③ 사랑에 관한 표정이나 행동, 관련 글자 등을 신문이나 잡지에서 찾아봅니다.

- ④ 어떤 것을 찾았는지 이야기 나눈 후 가위로 오려 냅니다.
- ⑤ 오린 조각들을 도화지에 붙이고 색연필로 꾸며 사랑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해 봅니다.



[이야기 나누기 · 미술]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세요 1

복음 : 마르 10, 13-16(마태 19, 13-15; 루카 18,15-17)

어느 날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청소년국 이미지 디자인팀, 2008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뒤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그림이 그려진 퍼즐 조각을 가위로 오린 후 맞춰 보세요. 다 맞추었으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 보세요.

[이야기 나누기 · 미술]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세요 2

선생님들께 ☞ 예수님께 우리가 안기는 모습을 만들기를 통해 표현해 보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앞의 성경 말씀(마르 10, 13-16)을 들려준 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며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후 만들기 활동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준비물 : 재활용한 일회용 숟가락(큰 것 1, 작은 것 2), 두꺼운 종이, 셀로판테이프, 네임펜

- 누가 예수님에게서 어린이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았나요?
-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셨나요?
- 예수님께 안기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 ① 두꺼운 종이를 삼각형 모양으로 자릅니다.
- ②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위에서 아래로 반 접습니다.
- ③ ②를 다시 삼등분 하여 가운데는 큰 숟가락, 양 옆에는 작은 숟가락을 붙입니다.
- ④ 큰 숟가락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작은 숟가락에는 우리들의 얼굴을 꾸며 줍니다.
- ⑤ 작은 숟가락을 붙인 양쪽을 접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안아 주시는 모습을 표현해 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을 매우 사랑하세요. 그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척 특별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어린이들을 늘 환영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 보아요.”



[이야기 나누기 · 미술] 착한 목자 예수님

선생님들께 ☞ 6월 예수 성심 성월은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 성심 대축일이 있는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지정하여 축일을 성대히 기념하고 성시간과 기도회 등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신심 행사를 통하여 성심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예수 성심께 감사하며, 희생과 보속으로 그 사랑에 보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마태 18, 12-14)

· 그림 : 착한 목자 예수님
 · 출처 : 『그림으로 보는 하느님의 신비』 (안셀름 그린 지음, Egiño Weinert 그림, 분도출판사, 2001)

- 백 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찾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 예수님은 왜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셨을까요?
-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소외되거나 외로운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 내가 만약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소중하게 되찾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지요. 우리가 만약에 한 마리의 양처럼 길을 잃게 되더라도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반드시 우리를 찾아 주신 뒤 꼭 안아 주세요. 6월은 이렇게 사랑이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달로 예수 성심 성월이라고 불러요. 예수 성심이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이야기 나누기 · 감상] 착한 사마리아인

그림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눈 뒤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 29-37)

The Good Samaritan
 · 작가 : Vincent van Gogh
 · 제작 : 1890
 · 기법 : 캔버스에 오일
 · 소장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 위의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무엇을 하는 모습 같나요?
- 두 사람의 표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 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아서 말에 태우려 하고 있을까요?

“그림을 보면서 잘 들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해 주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 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많이 다치고 옷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다친 사람은 길바닥에 그냥 쓰러져 있었지요.”

- 가 그 옆을 지나가며 쓰러진 사람을 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고도 그냥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지요.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쓰러진 사람의 옆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 사람들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 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그러던 중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는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상처를 닦아 주고 자신의 말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여기까지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해 주신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였어요. 그리고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려라.’ 라고 덧붙이셨지요.”

-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도움을 주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실까요?
-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마음을 본받아 서로 돕고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해요.

김수연 올리비아
 서울대학교 청소년국 유아부